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
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
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
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어
http://www.buddhapia.com/mem/ha
nnaum

법공양 페이지

부처는 내면에 있으니 따로 찾지 마세요

15면에서 계속

이 세상에 혼자 내동댕이쳐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유리창에 비쳐진 자연이 실제인 줄 알고 유리창을 향해 열심히 날개짓하다 머리에 파를 흘리고 죽은 새 한 마리를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저의 어리석음을 보는 듯 했습니다. 무수히 날개짓하던 새는 죽으면서 그대로 나는 열심히 살았노라 했을까요? 새에게 조그마한 지혜라도 있었다면 잠시 날개짓을 멈추고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를 살피며 바람을 따라 대자연으로 나갔을텐데, 죽은 그 새를 하얀 목련나무 밑에 물어주면서 저 역시 무작정 날개짓만 하기에 바쁜 어리석은 인간임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열린 창은 어디 있는가,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가 하며 잠시 서서 주위를 둘러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잡지에서 평소 신뢰하던 번역가께서 두 달에 남긴 유서를 읽게 됐는데 물질적 유산은 없고 책 4권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중 한권이 <한마음오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2만원은 제가 죽고 간장으로 거의 20여 일을 살 수 있는 돈이었지만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하루를 살더라도 알고 죽자. 대형 콘스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깨닫게 되셨을까 하며 그 순간의 전 재산 2만원을 던져 <오전>을 선택했습니다. 이 순간이 저를 지옥에서 황금빛 세계로 건져 올려진 제 삶의 최대의 선택이었음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다 읽고는 바로 이것이 확실하며 지원을 찾아 두 달만 보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방치된 인생 앞에 자책증까지 겹쳐 사람 대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콘스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를 이끌어 내셨고 스님 뒤에 서 있던 저는 무조건 스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주인공만 부르면 수입이 없던 저에게 인양 갈 차비가 생기고 천도재비가 저절로 생기고 알뜰 모른 선원만 왔다갔다만 해도 걸출하고 좃듯같은 업의 강이 녹는 것이 느껴지며 콘스님 법문이 생생하고 또렷하게 들려지고 큰 두뇌가 짙게 열리고 온 세포들이 활짝 문을 열고 살아났습니다. 어떤 때는 누가 저의 생활을 완전 보정해 줄테니 안양에 가지마라 할 때도 있었지만, 진리를 알기 위해 먹고 사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다 하며 콘스님 법문처럼 주인공만 믿고 발랑 나자빠지는 공부를 했다니 허공이 짙고 비가 내리며 바람이 아니요, 허공이 허공이 아닌 꼭 한 우주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잡고 울고 주인공 잡고 웃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인공 마음 알고자 느끼고자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걸어온 세월이 지나, 현대 의학으로 불치라 하던 병들도 다 낫고 부초처럼 퍼들던 생활을 끝내고 아름다운 학교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물질들이 막 날아와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을 맞이하였습니다. 고통 속에 있어서도 콘스님 법을 받으며 가니 그것은 고통이 아니었고 제 내면을 원만히 하는 보물같은 재료였고 참선수교 마두와 하나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부처님께 감사 회향만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법을 청하옵니다.

지난 10월 첫째주 콘스님 법문 중에 "부처님께서 더 사할 수도 있었는데 아난이 채 못 들어서 더 사하시라 하시던 말을 못하고 못 알아들었다. 부처는 남이 원하면 원하는 것까지 해결한다"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온갖 물음표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콘스님께서 건강하게 오래 계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난은 무엇을 몰랐던 것일까, 주인공에게 모든 의문을 맡기던 중에 <아함경> 속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사람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거나 만일 비구 비구니가 사신족을 알면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리라. 닦고 익혀 늘 생각하여 잊지 않으면 하고 싶은 대로 되어 가히 죽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한 걸 뿐만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아난아, 부처는 사신족을 벌써 익히고 행하여 일심으로 잊지 않으니 뜻에 살고 싶은 대로 가히 일곱 세 번도 살 수 있느니라." 부처님은 이 법을 거듭 말씀하시었다. 그러나 이때에 아난은 마음에 딴

생각을 하며 마군의 장난을 당해 몽롱하여 깨닫지 못하고 잠자코 있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한 나무 밑에 가서 조용히 생각하여 보아라" 아난은 본부를 받고 바로 한 곳에 가서 고요히 앉았다. 이 때 마군의 왕 파순이 부처님께 와서 사죄했다. "부처님의 뜻은 열반에 들고자 함이 아니시옵니까. 교화할 것을 이미 다 마치었으니 가히 열반할 때입니다. 옛적에 부처님이 구르하위에 계실 적에 여러 장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처가 되어 비록 자유자재함을 얻었으나 오래 머무르기를 탐내지 아니한다'고 하셨으니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까. 제도하실 것을 다 제도하셨으니 열반에 드십시오" 부처님은 이를 듣고 파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날까지 열반에 들지 않은 것은 나의 제자 모든 비구 비구니들이 다 지혜롭게 경과 계법을 받아 실천하여 도에 들어오지 못한 이를 이끌어 배움이 성취되기를 기다린 것이며 또 나의 청신사 청신녀들이 지혜를 얻어서 경과 계율을 받아 실천하여 도에 들어오지 못한 이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물러갔다. 부처님은 곧바로 앉아서 선정에 드시매 삼매 가운데에 나머지 목숨을 놓아버리셨다. 이때에 땅이 뒤흔들리고 하늘 가운데서는 부처님의 광명이 사무쳐 비추기를 끝이 없었다. 아난은 마음에 놀래어 온몸의 털이 오싹하여져 벌려 부처님께 가서 예배하고 한쪽에 서서 부처님께 사죄했다.

어느것든 마음하나 돌려서
한군데다 맡긴다면
우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아
천차만별로 쓸수 있어요

마군은 또 사죄했다. "그것이 반복된 때가 이미 되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시었다. "너는 잡자코 있어라. 지금부터 석달 뒤에는 열반에 들리라" 마군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물러갔다. 부처님은 곧바로 앉아서 선정에 드시매 삼매 가운데에 나머지 목숨을 놓아버리셨다. 이때에 땅이 뒤흔들리고 하늘 가운데서는 부처님의 광명이 사무쳐 비추기를 끝이 없었다. 아난은 마음에 놀래어 온몸의 털이 오싹하여져 벌려 부처님께 가서 예배하고 한쪽에 서서 부처님께 사죄했다.

배와 선장 돌아니듯 내몸과 불성 돌아니죠 발전하느냐 못하느냐 한 생각에 달려있어

"놀랍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땅이 이렇게 움직이오니 이 어이된 인연이옵니까" 부처님은 아난의 물음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땅이 움직이는 것은 여덟 가지 인연이 있느니라. 어떤 것을 여덟이라 하는가. 저 땅은 물 위에 있고 물은 바람에 의지하고 바람은 공중에 의지한다. 공중에 큰 바람이 있어 때로 스스로 일어나면 곧 큰 물이 어지럽고 큰 물이 어지러우면 곧 땅이 두루 진동한다. 이것이 그 풀이다. 다시 아난아, 가끔 들을 것을 얻은 비구 비구니 및 큰 위신력이 있는 하늘이 물의 성질의 맑은 것을 관찰하고 땅의 성질의 짙은 것을 관찰하여 그것을 알리고 스스로 힘을 시험해 보고자 하면 곧 땅이 널리 진동한다. 이것이 아난아, 보살이 처음으로 어머니 태에서 오른쪽 옆구리로 나와 생각을 오로지 해 산란하지 않으면 땅이 널리 진동한다. 이것이 그 넷이다. 또 아난아, 보살이 처음으로 위없는 정각을 이루면 그 때에는 큰 땅이 진동한다. 이것이 그 다섯이다.

다시 아난아, 부처님이 처음으로 도를 이루어 악마나 혹은 악마의 하늘이나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모든 하늘이나 세상 사람으로는 능히 굴릴 수 없는 위없는 법바퀴를 굴리면 곧 땅이 널리 진동한다. 이것이 그 여섯이다. 다시 아난아, 부처님의 교화가 장차 끝나려 할 때 생각을 오로지 해 산란하지 않고 생명을 버리고자 하면 곧 땅이 널리 진동한다. 이것이 그 일곱이다. 다시 아난아, 여래가 무열반계에 반열반할 때에는 땅이 크게 진동한다. 이것이 그 여덟이다. 여래가 몸을 버리고 열반에 들 적에 이르러 광명이 두루 비치고 천신이 참례하여 오면 곧 대지가 움직이느니라 이것이 여덟째 인연이니라" 하시자 아난이 "옛적에 부처님 말씀을 듣자오니 만일 제자가 사신족을 알고 많이 두고 실천하여 일심으로 잊지 않으면 마음대로 되어 가히 일곱 이상을 죽지 않을 수 있다 하시었습니다. 부처님 도의 덕은 이보다 더 크신지 오라 머무르실 수 없나이까?" "내가 이제서야 말하니 이미 늦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사신족에 대한 말을 세 번이나 하였는데 끝내 잡자코 혼침하여 깨닫지 못하고 마군의 장난을 받고 있더니 이제 와서 무엇이러 하는 것이냐" 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시절이나 요즘 지희들이 겪는 이 시절이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아난은 혼침하였을 지라도 오늘날의 콘스님 제자들은 이 중요한 때에 결코 결단할 수 있도록 마음과 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 법계의 통신을 완성해 놓으셨을 테고 여러 지원에서 콘스님 건강발전 새벽예배 백일정진에 이미 들어가 지극한 마음으로 콘스님께서 건강하셔서 저희와 함께 기실 수 있도록 발원하고 있습니다. 법계가 감응하도록, 콘스님, 육체적 재생의 에너지가 필요하시다면 저의 마지막 피 한방울 빼 한가루까지 다 바치겠습니다. 다 쓰십시오. 도반 여러분, 지금 우리 다같이 콘스님께 배운 한마음 주인공을 관하고 우리 모두 콘스님같은 경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콘스님 건강하시오며 우리 모두를 제도하시고 이끌어주시옵길 지극하게 청하옵시다. 콘스님, 저희들이 안심하고 열심히 정진할 수 있도록 대대비로 부디 허락하시어 지금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질이는 똑똑하지도 않고 미련한 것도 없게 공부 잘 하는구나. 하여튼 고맙소. 모든 진리에 관한 건을 이렇게 솔싹과 알리고 노력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도 없이 자기를 담은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본래 힘이 없이 한다고 했소. 그러니까 하여튼 고맙소. 그리고 피 한방울 뱉기만 하나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틀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 왜 여러분들이 자식을 기를 때에 자기 생각만 하고 기르는 게 아니라 자기 거를 죄 줘서 자식이 잘된다면 전부 주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자식에게 그 한방울을 주면 죄지 뱉지는 않을게요. 허허허. 이 허공에도 에너지가 없는 것 같지만 이 허공을 벗어나서 우주 바깥에도 에너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는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또 그럴 수도 있죠. (대중 박수)

이렇게 하는 반면에 우리는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다 배울 수 있게 되고 생각하게 되니까 모두 한마음으로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걸로 봐서 몇 분 몇 분 아난아, 보살이 처음으로 어머니 태에서 오른쪽 옆구리로 나와 생각을 오로지 해 산란하지 않으면 땅이 널리 진동한다. 이것이 그 넷이다. 또 아난아, 보살이 처음으로 위없는 정각을 이루면 그 때에는 큰 땅이 진동한다. 이것이 그 다섯이다.

책 냈는데 점검해 주십시오
스님 반갑습니다. 저는 책을, 하나



그림 · 최주현

냈는데 스님께 점검받고자 나왔습니다. 여기에 부처님 뜻을 잘못 썼다든지 진리를 오도했다면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잘못됐든 잘못든 본인이 쓴 거니까 본인이 알아서 공부하면서 그것을 바꾸려면 바꾸고 잘못되면 잘한 대로 또 지극하게 생각할 테고, 거는 모든 게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지 나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이 법을 이행하기 위함이고 또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애근데 태양이 태양더러 그거를 바달라고 그러

린 마음을 가졌어도 여러분이 마음 하나 돌려서 어느 거든 그 한군데다가만 맡기면, 한군데 우물에다 물을 부어서 솟아 나오게 하는 것과 같이 한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천차만별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좀 그렇게 되실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여러 스님들이 산길을 가다가 서로서로 가르치려고 하니가 동그렇게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선 여기 못 들어오는 놈은 하나도 깨우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스님들은 다 그 속에 들어갔는데 맨 뒤

에 오는 스님이 오더니만 발로 그 그린 거를 직접 모두 지워놓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셨으면 그 뜻을 대충 아시라고 봅니다. 틀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그 틀이 아닌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도 알고 말입니다.

그리고 달마대사께서도 공력이 없다는 그 말에 죽었습니까? 양무제가 죽어서 물었죠. 그랬는데 어느 신하가 달마 스님을 봤다고 했죠. 짚신 한 짚을 주창자애다 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소를 파보니까 스님은 없고 짚신 한 짚만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하신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무슨 까닭에 신발 한 짚만 주장자에 꿰가지고 다니셨느냐. 이게 무슨 까닭이냐. 죽었는데 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오고 싶어 나오게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먼저 달마대사 당시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현실에 일초 전에 달마대사가 그랬다면 일초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때로는 누가 아프다면 그 사람의 과거로부터 온 거면 과거로 돌아가 봐야 되죠?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문서를 떼어 야 지금 현실에 그 사람의 유전을 없앨 수가 있어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한군데다 바라 한군데다 바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멎어서 지게 나갈 수 있다면 그대로 행하는 거지 이유가 붙지 않아요.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생각이 자기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건 자기생각에 정한 이치로 하는 거지 할 수 있고 발전을 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생각이 자식을 길게 잘 길게 할 수도 있고 뼈뼉뼉하게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모두가 한생각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는 하나로 돌아간다. 세상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딘고, 이럴 때 어딘다고 해야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한분한분 안 계시다면 이 세상 우주 천지가 없죠? 생각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남는 건 자기생각에 없죠. 자기가 있으니까 우주 삼라만상이 있고 자기가 있으니까 삼라만상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어떻게요? (가슴을 치시며) 어찌요?

정말 허물없이 이렇게 길을 걷는다면 우리가 요다음에도 정한 이치로 또 만나게 되겠죠. 진리가 그러하니까. 다른혹성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또 만나게 되겠죠. 우리 이 공부하는 어느 지장의 부분을 배우고 관세음보살의 부분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전체의, 즉 말하자면 전체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자라고 미련한 사람도 자기를 붙들고 애를 필요가 없고 그냥 원 하나만 붙들면 그 가지나 그 뿌리나 다 그냥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편하고 쉬워요. 위 상투만 뒤고서 다 말려다 이었습니다. 이상투에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으니까 거기가 말려라. 시대가 변해서 누진이라고 해도 알아듣기는 하지만 지금 어떤 애들은 컴퓨터라 그러면 아주 잘 알아들죠. 그리고 없애지고 있는 것도 자기가 입력을 하고 지우고 이러는 것도 다 알고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저게 한 일을 안다 이런 것도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입력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마음대로 그리기 이렇게 풀이하면 뭐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뜻으로 좀 나와요. 부처님께서는 어떤 걸 하든지 그걸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자기가 가는 대로 가게끔 내버려둬요. 그게 공부하는 거니까요. 가다 막히면 돌아서 게 돼 있고 가다가 트이면 트이는 대로 가게 돼 있는 그 원리를 그냥 배우죠. 그러니까 길다 짧다 이런 것이 틀이 아니게끔 자기한테서 모든 게 나온다는 거. 자기가 그것을 써서 다 자유스럽게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아셔야 합니다.

하여튼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썩게 쳐놓고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셔야 이 지구가 불국토가 되죠. 그리고 전체 우주의 에너지도 그냥 우리가 마음공부했으니 보이지 않게 다 나와서 보이게끔 전부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죠. 앞으로는 구비구비 입에다 넣고 먹어서 통을 누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계기가 올지는도 모르죠. 먹고 싸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도둑질도 강도질도 먹고 싸는 데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자기를 걸어가는 일들만 생각하세요. 또 걸어가다가 남이 뛰었다고 해서 그걸을 탓하지 마시고요. 내 공부만 늦어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다가 놓고 어떤 거든지 다 놓고 들어가세요.

※위 법문은 1999년 10월 17일 정가법회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